

연 중 제 22 주 일

기도서 P. 429 C해

- 1독(지 서) 9, 13-19절
- 2독(필 레 9b) ~10. 12~17절
- 복음(루 가) 14, 25~33절

숨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강 료□



인생은 아름다운 것

김 병 환 신부

썩춰베리가 지은 어린왕자에 이런말이 나온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디엔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사막은 공포를 자아내는 적막한 모래 벌판이다. 모래이외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막을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 넓은 사막의 모래알들이 황금빛을 내는 것같은 신비로운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있다. 이처럼 사막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어린왕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막 그 어디엔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래언덕들이지만 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물기기에 더욱 더 신비로움이 넘치는 곳으로 생각되어진다.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사막을 축축히 적셔주며 감싸고 있는 우물, 그것은 사막에 신비로운 생명력을 주고 있다. 활기 넘치는 사막, 신비에 싸인 사막,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막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우리의 인생도 사막과 다를 바 없다. 내 자신 생을 얻는 데 기여한 적도 없고 노력한 적도 없었거니와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며, 생겨나는 줄 알거나 하면서 생겨 난 것도 아니다. 내 자신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얼마간 살아갈 것이다. 더우기 내 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남보다 빨리 걷고, 빨리 뛰고,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특급열차를 집어탄다. 하지만 인생은 그림자도 없이 태어났듯이 그 무엇을 찾으려 찾으수록 멀어지는 서러움들을 얼마나 자주 겪었는가! 그 초조함과 허탈감에 우리는 삶에 대한 실망으로 의욕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며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값진 것이다.

하느님이 부르시는 은총의 향연은 언제나 풍성한 식탁처럼 많은 이들을 부르시기에 우리의 생은 은총의 생이지 결코 실망과 후회의 생은 아닐 것이다. 사막에 있어서 우물이 신비로운 생명력을 주고 아름다움으로 장식해 주듯이 내 생애 있어서도 신비의 생명력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생은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며 가슴 뿌듯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그분의 그늘 밑에서 그분의 숨결을 들을 수 있는 이는 결코 서럽지 않은, 희망에 벅찬, 신비감에 싸인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풍성한 식탁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두버섯처럼 솟아오르는 자기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생명의 새가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 길이야말로 생의 아름다운 여정인 것이다. (금산 천주교회 주임신부)



교회 의 사 명

—8월 정의평화 미사 지향—

「교회는 항상 그 사명에 대해서 안팎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의 지체들에게서 심각한 비판을 받게 된다. 교회 내에서 그런 도전이 없으면 교회밖에서 강한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냐는 도전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생명을 누리는 이들의 구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에 전심 전력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는 사회, 문화, 경제, 기술, 제도, 정치, 과학, 물질 문명 등 모든 분야의 구원이 포함된다.

혹자는 아직도 그러저러한 일들은 종교가—더 정확히는 교회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불안스럽게 여기거나 월권행위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가 이 모든 분야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느님의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권리와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미사에서 우리는 오늘의 사회에서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어떠한 제도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실현하게 해주시도록 성신의 은총을 간구하자.

미사를 마치며 소개된 신현봉 신부님의 말씀은 듣는이의 마음을 착잡하게 했다. —“혼자 풀려나와 죄스러울 뿐입니다. 감옥에서보다 더 외롭습니다. 그러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내주는 영영용 택시를 타고 나온 저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정 이 산 채





복 자 성 월

김 영 구 신 부

구월은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높이 찬양하는 '복자성월'입니다.

우리들 신앙인의 궁극 목적이 사주구령(事主救靈)이라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순교정신을 가져야 하겠고, 그 정신으로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순교, 순결 등은 인간생애에서 다 고귀한 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절개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므로 고귀합니다. 순교, 순결이 고귀하다면 순교는 차원높은 고귀의 절정인 것입니다.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나 나 개인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함이 자아(自我)의식의 소산이라면 순교는 모든 나라, 모든 인류의 대주재이신 하느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아를 망각한 희생의 재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절정의 고귀한 순교를 하기 위해서는 굳센 신앙이 있어야 하며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리지식과 주님의 은총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 순교 선열들은 스승이 없어 교리에 무식하였고 은총의 기관인 7성사를 배풀어 줄 자 없이 성세성사의 부득이한 약식 대세만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지무능한 대세자들로서 50여년에 걸쳐 장렬한 순교자가 몇천명에 달했단고! 아! 장하다! 이 역사적 사실은 세계 가톨릭 사상 미증유의 사실이면서 우리 민족만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순교 선열들은 복음의 진리를 찾기에 자주성이 강하면서 신속하였고, 그 찾은 진리를 신봉하기에 열렬하면서 성실하였고, 그를 지키기에 굳세고도 용감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흘린 핏방울 속에 그 진리의 씨를 담아 이 강산에 팔고루 뿌렸습니다. 좁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 그분들의 피로 자라서 수십 수백의 알곡을 맺어 이제 백만을 넘었습니다. 우리 백만 후손들이 이어받은 신앙은 그분들 순혈의 상속이요,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열들의 고귀한 유산을 우리에게 끼쳐주기 위하여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자 알아보는 것이 그저 옳다기 보다는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여러가지 방법을 쓰면서 전도를 했지만 결국 모두 순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거두게 되었고, 그들의 후계자들 역시 순교함으로써 교회를 굳건하게 확립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순교정신은 그리스도 교회의 치명적 원동력이 되며, 때때로의 강력제가 됩니다. 2천년의 교회사를 보면 무사태평시의 신앙생활은 신성미를 잃은 교회, 부패일로에 빠진 교회, 예컨대 중세기의 신앙생활이 그렇듯이, 그러므로 그

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는 항상 박해의 대상이 되리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때때로 교회에다 박해를 허락하시어 새로운 활력과 발달한 정신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멜랄리아노 교부의 말씀과 같이 "순혈은 복음의 씨앗이다. 황무지에 뿌리는데도 그 순혈의 씨여야 하고, 묵은 밭에도 순혈에 젖은 새로운 씨가 뿌려져야 새로운 결실을 많이 거두게 된다"했읍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리는 사주구령에 있어서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7성사 실시, 제명 준수, 향주 3덕, 4부덕, 완덕생활을 위한 복음 3덕 실천을 강조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순교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달성에 있어서 절대적이요, 최捷径(最捷徑)이요, 단연 확고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 순교의 존귀한 가치여! 아 순교자의 위대한 그 장거(壯舉)여!

「그 때에 의인은 자신있게 일어서서 그를 꺾박한 자들과 그가 고통을 받을 때에 떨시한 자들과 맞설 것이다. 그러던 그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 떨며 그가 뜻밖에 구원 받은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들은 마음이 아파서 후회하고 신음하며 서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사람은 전에 우리가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이다. 우리는 얼마나 바보였느냐? 우리는 그의 사를 풀을 보고 미쳤다고 하였고 그의 죽음도 영예롭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 가운데 끼게 되었으며, 성도들 가운데 끼게 되었는가? 분명히 우리가 진리에서 빛나잔 길을 걸었고, 우리에게 정의의 빛이 비치지 않았으며 우리 위에는 태양이 일찌기 떠 본적이 없었구나. 우리는 인적조차 없는 황야를 걸어온 셈이다. 죄와 파멸의 길 치고 걸어보지 않은길이 없었던단 주님의 길은 알지 못하였다. 우리의 오만이 무슨 소용이 있었으며, 우리가 자랑하던 재물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모든 것은 이제 그림자 처럼 사라지고 뜬 소문 처럼 달아나버렸다. 거센 물결을 헤치고 가는 배와 같이 한번 지나가면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고 바닷물에는 용골이 지나간 흔적도 없구나"」(지혜서 5,1-10).」

그러므로 가톨릭은 시복 절차에 있어 다른이든 반드시 확실한 기적 2,3건이 있음을 전제조건으로 하지만 순교자에 한해서는 기적이 전제조건이 아니고 순교사실의 확실성만 있으면 복자 위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이 우리 나라 교회사를 대부분 차지하였습니다.

"복자 노렌조와 안드레아와 모든 치명자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시!"

□설계·감리·허가 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희소식!!!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 3-1449

+ 반주법(명곡, 가요), 성악(독창, 합창), 출장지도
확성학, 대학진학자 발성지도
가수지망생,



전자울겐, 피아노

개인지도(3-5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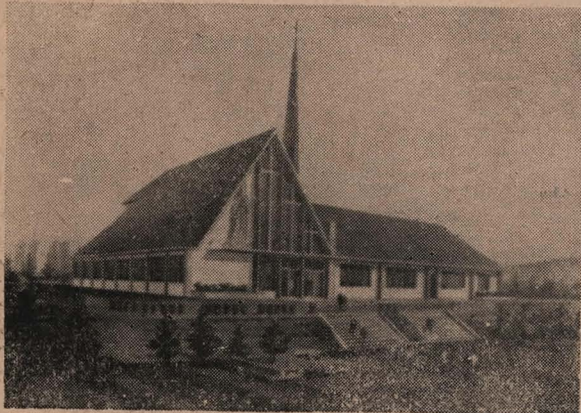
이일규 (알로이시오) 이삭회장

전주소방서 북방 70미터 기린전제2층

□ 양지쪽 □

삼천만원 목표 달성 기념 잔치

—전주 전동 성당 건립 60주년 기념 새성당—



지금부터 2년전(1975년) 7월 5일, 본 성당에서는 성당 건립회갑 기념행사를 성대히 가진 바 있었다. 이때 김주교님께서는 「기념행사가 잔치나 환경미화 정도로 그치는 것보다는 기념성당을 짓는 것이 60년전 이 성당을 지은 교우들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이 계기가 되어 재경(在京) 전동성당 교우들과 힘을 모아 호차동에 부지 600평(당시 평당 5,000원)을 매입한 바 있었다.

그 후 2년이 흐른 금년 2월에 창립 총회를 갖고 성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목표액 3천만원을 세우고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오던 차 바로 지난주일(8월 21일), 주교님을 모시고 많은 교우들과 함께 3천만원 목표달성 기념잔치를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김관철 신부님은 「3천만원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남모를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이 목표액이 달성하게 된 가장 주요원인은 파티마 기적의 성모상을 모시고 목주의 기도 10만번 봉헌의 결과임을 추호도 의심할 바 없습니다. 10만번 목주의 기도를 끝마치는 성모성월 마지막 주일 첫날에 900만원, 그 다음 주일에는 600만원, 불과 10주일이 채 못되는 바로 지난 주일부터 3천만원이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사연중에는 추진위원장을 비롯하여 교우아내를 가진 외인 남편이 돈 100만원을, 여교우 한분이 금덩어리 열돈(모두합해 118돈)을 형질에 싸아 손에 쥐어주던 일 등등... 그외에 눈물어린 사연들이 내마음에 깊이 새겨져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습니다.」 김신부님의 말씀에 이어 주교님의 격려사가 있었는데 주교님께서는 「여러분은 참 장한 일을 하였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대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영혼 사정뿐만 아니라 물질에까지도 몇십배 갚아주실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현재 이리 창인동 성당에서도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전개하여 2천8백만원이 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한 일임을 나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자들의 의타심을 자립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교구는 한국에서 제일 먼저 자치교구로 설정되었습니다. 요즈음 주교님들, 신부님들이 우리교구를 부러워할 때 부끄러운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이번 여러분이 한 일로 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3천만원 목표달성 기념잔치라야 수박과 포도정도였지만 이토록 흐뭇한 잔치가 또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전동 천주교회 홍보부)

요사이 (214) 김병오



□주산반·부기반·경리실무반□

삼일주산경리학원

(국교부, 중고등부, 일반부)

정진경 (분도)

☎ 1462

병무청 ← 구법원 중간

□타자수리, 취업알선, 매월검정□

뉴-타자학원

원장 신승무(바오로)
전화 ⑥666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도충동 605-1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광사

(구 태양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세느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전화 ⑥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역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열 중앙시장동
(전화 ③4577)

□개원안내□

★언제나 찾아주세요★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소아과) 앞
원장 김현(아오스딩)
전화 ⑥1665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순교자 헌양대회 (18일 <일> 오전 11시, 순정이...전주 해성 중·고교 교정)
 - ① 끝짓기 대회 (내용...순교정신을 기리며, 오늘에 그 정신을 되살려 보다 훌륭한 신앙 생활을 하자)
 - 가. 시상...국·민학생부, 중·고등학교생부, 일반부 각각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 입선작 약간
 - 나. 작품제출...취 내용으로 글을 지어 (산문이나 시) 9월 14일 까지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교구청 내 평형 사무국)으로 제출 바람
 - ② 성가 발표회 (당일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강당)
 - 가. 본당별로 「은 세상이 주님을」 「주여 나의 몸과 맘」 「나는 포도나무요」 「주여 입하소서」 「복자 찬가」 중 2곡, 나. 출연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다. 참가 여부는 14일까지 평형사무국에 통보 바람
2. 혼인 문제 상담일 (5일 <월> 오전 10시-오후 4시, 교구청 응접실)
3. 조국을 위한 절기기도회 (5일 <월> 오후 8시, 가톨릭 센터)...신주교 합동 기도회
4. 전공 CELL 회합 530차 돌파...선배님들을 모시고 싶어요. (연락처: 중앙성당 내 전공 셀 의장 3-2035)
 - 교구 올뜨레아 개회 (11일 <월> 14시, 가톨릭 센터, 회비 500원) 전국 올뜨레아 참가의전등 중요요건 있음
 - 가톨릭 센터 직원 채용...경리직 문명옥(삼례), 식당 배성희(고산), 매점 정우경(서학동), 시보 황해연(중앙)
 - 사람 찾음...정읍 응동면 뒷골 공소 안아타나시아 (금순)의 귀가 바람오니 행방 아시는 분 편지질로 연락
 - ※ 마인드 컨트롤 (Mind control) 교육 참가 희망자 모집 (매주 목요일 오후, 장소: 전주, 회비: 3만원)
 - 하느님이 당신에게 주신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계십니까? 보통 인간이 하느님께 받은 3%, 아인슈타인이 10%밖에 활용을 못한답니다. 개발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희망자는 9월 5일 <일> 오후 2시까지 순정이 편집실 (3-5098)로 연락 주세요.
 - 방송안내...문화방송 (MBC)...매일 밤 11시 30분 「새벽의 오솔길」 한 방송
 - 서해방송 (SBC)...매일 밤 11시 30분 「새벽의 오솔길」 한 방송

(중앙) 전화 3651 주임 신부 서 동 복
3874 보좌 신부 김 진 석
사도 회장 이 복 석

1. 방저거 3회 월례회: 4일 오후 2시반, 강당
2. 셀 기도회 합: 4일 오후 3시, 강당
3. 성경 강좌: 5일부터 매주 <월·수·토> 저녁 미사 후 강당
4. 학생회 성가연습: 매주 <화> 저녁 미사 후, 강당
5. 가정방문: 6일부터, 예비자 교리...3일부터 (시간은 전과 같음)
6. 첫 영성체 교리(국민학생): 5일부터 매일 오후 5~6시
7. 청년 합창단 임원 개편: 회장-이정수, 부회장-한규학, 노순덕, 총무-김수동, 재무-이정신
8. 기증 감사합니다: 배극기, 교황제-고재상 (고의과원장, 나자로), 미사중-차구복(요한)
9. 데레사 본명 가지신 교우 (30세 이상) 모임: 4일 공식 미사 후, 강당
- 지난주 봉헌금: 114,510원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동
사도 회장 박 종 용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2. 중고생 첫 영성체 준비교리: 매주 <목> 저녁 8시
3. 성모회 새임원 소개: 회장-이혜라, 부회장-백예도리카, 양베로니카, 서기-박방지가, 회계-연엘리사
4. 예비자 면접: 6일 오후 2시반~5시, 저녁 8~9시
5. 명상의 집 신축헌금 감사합니다(중·노 2가편)
 - 김경남, 안복례, 이규현, 김수철, 전창환, 배선화, 이춘자, 김갑인, 박삼순(각 5천), 최정순, 최인화, 최봉례, 이성기, 이성녀, 유동환(각 1천), 강학녀, 김선희, 황명화, 서옥봉, 조금옥, 박순금(각 2천), 백민숙, 김행자, 송미정, 어부녀, 강선녀(각 3천), 이기욱, 박양금, 송한례, 김구래, 백복희, 백정녀, 한귀자(각 1만), 최낙례(6천), 박윤규(1만 5천), 유영철(5만), 임실(3만), 문형주(2만), 박종용(7만)
- 재속 청년회 (23,220)
- 지난주 봉헌금: 62,585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1. 사도회 확대회의: 공소회장, 구역회장, 사도회 임원 참석 바람
2. 새 성당 정리작업! 전신자 참여를... 4일(본당), 11일(공소) <미사-오전 12시, 오후 5시> 청소도구, 삽, 펜이, 손수레 준비 바람
3. 오늘 주일학교 개학: 교리(오후 2시), 미사(3시)
4. 성당 신축위한 기를 판매 협조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5. 청년 미화 봉사대 발족! 매주 <토> 오후 3시 33분 모임
6. 신축 헌금 신입: 서임석 (의자 8구좌), 김삼남 부부

(1만원), 최중녀, 박종대(각 의자 1구좌), 정시인 (5천원), 장원주(2천원) 총계 9,102,000원

□ 지난주 봉헌금: 48,555원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월례회: <화> 저녁 미사후로 연기
2. 성우회 월례회: 11일 공식 미사 후, 우준식 형제 맥
3. 첫 영성체 교리: 12-24일 오후 5-6시반
4. 회계년도 9월-12월말로 변경, 주경(10-12월) 예산에 계속 협조 바람
- 복자성월 동안 매일 미사후 특별기도!
- 지난주 봉헌금: 45,135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준

1. 사도회 확대회: 10시 미사후, 구 반장님 참석 바람
2. 예비자 안내: 10시 미사후, 학생회의실
3. 미사시간 변경: 주일-오전 6시, 10시, 밤 8시, 평일-<월·목> 아침 6시, <화·수·금> 밤 8시
4. 어린이미사 <토> 오후 4시
5. 반사회: 1반(6일), 2반(7일), 3반(8일), 4반(9일)
6. 학생회 월례회: 10시 미사후
7. 교무급 완납자: 4만 (김이식, 김기순, 김순애, 광정회, 전종호, 손숙옥, 오복남, 정만성, 유영태), 5만(김한규, 신이근, 이영소)
- 지난주 봉헌금: 40,575원 감사합니다

(순정이)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전 종 근

1. 사도회, 부녀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2. 예비자 교리: 매주 <화-금> 오후 8시
3. 학생회 월례회: 11일 공식 미사 후
4. 다음주 신자들의 기도: 정주복, 이석재, 정귀비
- 지난주 봉헌금: 76,356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 한 철
보좌 신부 김 윤 석
사도 회장 유 석 중

1. 오늘의 모임: 사도회(저녁 미사후) 성화회(10시 미사후), 유아세례(2시 미사후)
2. 자모회: 회정(6일 오후 2시-7일), 50주년 총회(8일, 성모성탄)
3. 치명자산 9월 기도: 12일부터, 새벽 6시
4. 복자성월 가정 심방: 이번주간 서완산동, 돌꼭지
5. 복자성월은 봉헌의 달 (건립금, 교무급)
- 지난주 봉헌금: 124,190원
- ※ 새 성당 신입금...홍남동-김데레사(1만)/경원동-성복순(3천)/동완산동-양덕용(1만)/교동-김금주(5천)/중앙동-이준철(1만)/전동-성회원(금 부못지 1돈/기타-최아셀라(1만) 누계 30,627,000원